

농어촌공사 군산지사, 원거리 경작 영농 어려움 해결한다

윤 조경장 기자 | 승인 2025.09.24 14:09

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원거리 경작 영농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.

24일 군산지사는 거리가 멀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'공공임대농지 지원자 간 상호교환 제도'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번 제도는 공공임대농지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집단화 및 통작거리 단축 등을 이유로 공공임대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.

상호교환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연중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군산지사 관계자는 "원거리 경작 및 분산된 농지 관리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 및 영농 편의 증진으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군산=조경장 기자

저작권자 ©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조경장 기자